

## 농축산부, 가금류 계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육계, 토종닭, 오리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시·도지사는 관내 농가 및 계열주체에 적극 홍보해주고, 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 등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사육하는데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를 농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자료를 항시 비치하여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가는 회사와의 계약기간동안 제3자와의 사육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육자재는 육계(토종닭, 오리)사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양관리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 및 경영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 수시로 제공해야 하며, 농가도 회사가 제공하는 사양관리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해 출하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육 중인 가축이 질병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육마릿

수 및 회전수와 관련해서는 사육환경이나 계절에 따라 회사와 농가는 상호 협의하여 공급마릿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연간 사육 회전수는 육계(4~6회전), 토종닭(2~3회전), 오리(5~7회전)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준계약서의 활용여부는 축산계열화사업 평가, 모범사업자 지정, 정책자금 우선 지원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3. 09. 02

##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사)한국오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조병임, 이하 시험연구소)는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사)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와 오리고기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 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오리고기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시험연구소는 그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여 직접 원산지 판별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기법을 전수해 왔으며, DNA를 활용하는 유전자분석법과 유기·무기성분을 활용하는 이화학분석법으로 구분된다.

\* 원산지 판별법 개발 품목 수 : 104개(유전자 3, 이화학 101)

원산지판별법은 국민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고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오리는 세계적으로 품종 수는 적으나, 수입한 종오리(씨오리)로부터 생산된 국내산 오리와 수입 오리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 원산지 판별법 연구가 필요하다. 오리고기 원산지 판별법이 개발되면, 품종 수가 많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조병임 시험연구소장은 “처음으로 생산자단체와 체결한 원산지 연구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생산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013. 09. 02

을 확보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이며 기존의 보양식 이미지를 벗고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할 만한 대중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내상이 런칭하는 ‘오리 브랜드’는 오는 9월 말 직영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시판될 예정이다.

한국경제 2013. 09. 04

## 오리자조금, 거출실적 부진 오리협, 목표액 4억... 7월말까지 4천여만원 불과

### 배우 안내상, 오리 브랜드 런칭... 오리 사업가 변신



배우 안내상(49)이 웰빙을 앞세워 ‘오리 브랜드’를 런칭한다. 안내상의 한 관계자는 “안내상의 ‘오리 브랜드’는 그만의 친숙하고 구수한 이미지를 앞세워 엄선된 국내산 오리를 국내 농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맛과 영양 만점의 웰빙 ‘오리 브랜드’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아 식품의 안전성(safety)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조금 거출이 저조해 오리 자조금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8월 3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오리자조금 사업을 비롯해 하반기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리협회는 올해 농가거출금을 4억여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7월말 현재 4천여만이 채 못 되고 있어 자조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계획했던 자조금 사업 대부분을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자조금 거출을 회원들에게 독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조금 납부 여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무자조금 도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리협회 이강현 전무는 “어려울수록 소비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데 자 조금 거출이 저조하다보니 소비홍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동참으로 불황타개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3. 09. 04

## [오리산업 전망] 불황 극복 실천이 답이다

### # 자율감축...불황타개 노력

올해 오리업계는 종란감축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불황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오리업계가 수급조절을 위해 자구책으로 종란폐기에 나섰다. 오리업계는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총 250~300만개의 종란을 폐기했다. 이는 오리계열 업체 및 부화장 관계자들이 모인 수급조절을 위한 회의에서 내린 결정으로 계열사 부화장과 일반 부화장에서 20~35%의 종란을 폐기한 것이다. 오리업계는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종란폐기, 종오리 감축, 원종오리 감축 등 물량 감축 방안을 논의하던 중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종란폐기 카드를 선택했다. 우선적으로 종란을 250만개 이상 폐기해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특단의 조치로 계열사 부화장 35%, 일반 부화장은 20%를 폐기하고 감축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금 등을 차등지원 한다는 초강수를 내세웠다.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으로 인해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스스로 불황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라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리고기 소비를 늘려야만 한다. 하지만 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겪고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오리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준까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이르렀다.

오리산지 가격 하락세에 따라 오리가격은 생산원가 이하에서 형성됐고 수많은 오리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종사자들에 위기가 찾아왔다. 상반기 내내 지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하절기 복 수요를 맞아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가격회복으로 단정 짓기에는 선부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무분별한 종오리 입식과 F1오리입식 근절을 위해 앞장서 왔고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리산업은 생산 주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이 호황을 누릴 경우 사육 수수 증가로 인한 불황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오리산업 현황

우리나라 오리산업 총생산액은 2006년 6480억 원에서 2011년에 1조 5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오리소비량은 2011년 3.13kg으로, 2004년 0.72kg이었던 것과 비교해 7년 새 약 335% 증가하는 큰 성장률을 보였다. 동기간 쇠고기 소비가 약 47% 증가하고, 돼지고기가 약 6%, 닭고기가 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리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오

리고기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성인병 발병 우려 때문에 꺼리는 반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의 건강 육류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리알의 부화에서부터 사육, 도압, 가공,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기업들의 등장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도 또 다른 요인이다. 아울러 외식이나 보양식으로 인식되던 오리고기를 가정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오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오리 산업은 생산 주기가 짧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고질병으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조절에 따른 산업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 산업기반 확충...안정화

오리산업은 지금껏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급속성장으로 인한 전후방 산업의 부재와 짧은 생산 주기로 인한 수급불안정이 산업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오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의 전반적인 정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뒤따르고 있다. 산업의 성장세와 더불어 산업 정비를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해 산업안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화시대를 맞아 축산 강대국들과의 연이은 FTA로 인해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나 세계 최대의 오리 생산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품질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실제 FTA 체결시 중국의 육용 오리 생산비는 수당 2166원으로 우리나라의 6182

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피해액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축산 환경 시설 재정비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더불어 소비계층별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산업기반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산업기반유지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인데, 오리의 육종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에 집중투자로 정밀 사육프로그램개발, 사육환경 개선 연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시설현대화 등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리산업은 산업의 성장 가치와 규모에 비해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수직성장을 이룩한 것은 업계의 자구노력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오리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 오리산업은 생산액에 비해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만 평가되어왔다. 이제 전후방산업의 재정비를 통해 도약한다면 잠재력 있는 블루오션이 아닌 축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축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경제신문 이해진 기자 2013. 09. 06

## 전남 유통 축산물 안전도 검사 모두 '적합'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 9월 13일 추석을

맞아 도내에 유통되는 식육 전반에 대한 특별 수거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22개 시군의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과거 문제 발생 이력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내 식육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75개 업체 126건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이뤄졌다. 수거한 식육 중 쇠고기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장비를 통한 검사 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 또 126건의 식육에 대한 부패육 검사,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검사, 오염지표 세균 검사, 식중독균 검사 등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관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계속 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전남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2013. 09. 13

분이 안 돼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가짜 쇠고기의 샘플 분석 결과 오리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비밀 제조공장과 판매망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라오닝성 라오양시의 한 육류가공 업체가 오리고기에 유해 첨가제를 넣어 가짜 쇠고기를 만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소고기에서는 중금속은 물론 기준치의 2000배가 넘는 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됐다. 육류가공 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발색제인 아질산나트륨은 독성이 강해 소량만 섭취해도 납중독에 걸릴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무역 2013. 09. 14

### 중국서 가짜 쇠고기...오리 성분 검출

중국에서 오리를 원료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쇠고기가 대량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화상신보에 따르면 최근 라오닝성 다렌시 공안 당국은 지난 5년간 1500여t에 이르는 가짜 쇠고기를 판매한 혐의로 다렌의 육류 도매상 왕 모씨를 체포했다. 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베이징과 허베이성 일대에서 가짜 쇠고기를 싼값에 사들인 뒤 대형 식품매장과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 판매해 3000만 위안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쇠고기는 모양과 색상이 육안으로는 진짜와 구

### 전북도, 오리 농장 대상 AI 일제검사 실시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대 유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종오리 및 육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AI 상시방역체계 운용에 따른 올 3분기 일제검사로, AI 발생 사전예방 및 국내 유입 여부 조기검색을 위한 항원 및 항체검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종오리 농장 19호와 육용오리 농장 약 170호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AI 청정 전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차단방역을 해야 하며, 특히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

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김춘상 기자 2013. 09. 23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 재개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이 재개된다.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주요 오리농장 170여 곳을 상대로 AI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선 상반기 닭과 메추리 등에 이은 3번째 검사로 고병원성 AI, 특히 중국에서 유행중인 신종(H7N9형) AI 유입 여부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신종은 지난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첫 발견된 후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인 약 130여 명이 감염됐고 이중 4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AI는 가금류와 사람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도내의 경우 2006년 첫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3차례 파동을 겪었다. 당시 살처분된 가금류만도 약 1,317만마리, 이로 인한 농가 피해액만도 1차례당 적게는 352억원, 많게는 1,000억 원대에 달했다.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 2013. 09. 23

## 호남권 ‘오리고기’ 소비량 1위... 수도권보다 1.77배 많아

호남권에서 오리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업계 매출 1위 코리아더커드가 1월부터 7월까지 각 지역별 오리고기 출고량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인구수 대비 오리고기 소비가 많은 곳은 호남권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등으로 집계됐다. 호남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49.4%를 차지하는 수도권보다 오리고기를 1.77배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하는 오리고기 형태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수도권은 훈제오리, 영남권에서는 신선육, 충청권과 호남권은 냉동가공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와 제주도는 인구 비중과 오리고기 소비 비중이 낮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2013. 09. 24

## “강진하면 청자? 동물농장도 있어요~”

전남 강진군 작천면에 소, 말, 염소 등 초식동물과 함께 뛰놀고 먹이도 주는 친환경 목장이 선보인다. 전남도 축산연구소와 강진군은 사료 재배 용지인 작천면 용상마을 인근 5ha(약 1만5000평) 초지에 18억5000만 원을 들여 체험형 목장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이곳에는 암소, 말, 염소, 당나귀, 돼지, 토끼, 닭, 오리 등 초식동물 10여 종 200여 마리가 방목된다. 목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쉼소와 미니돼지도 만날 수 있다. 동물을 가두는 우리가 따로 없어 관광객들은 동물을 만져 보고 먹이도 줄 수 있다. 동물농장에는 체험거리

도 다양하다. 병아리가 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소가 끄는 달구지도 탈 수 있다. 승마체험을 비롯해 토끼와 함께 경주하기, 동물 그림 그리기 등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진도군 진도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말에는 진도개 묘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장 한가운데 조성된 인공 섬을 수변 동식물 관찰 학습공간으로 꾸미고 건초를 활용한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목장 옆에는 오토캠핑장과 야영장도 만든다. 김원호 축산연구소장은 “10종이 넘는 초식동물을 모아놓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목장시설은 도내에서 처음”이라며 “애완동물을 추가로 방목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동물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승호 기자 2013. 09. 24

식물 건더기는 건조돼 사료원료(배합사료의 원료 1~5% 사용)로 만들어 재활용된다. 시는 2006년부터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사료 원료 4000여 톤을 10년 동안 전북의 한 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에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조건을 달아 계약할 정도로 음식물 부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뼈나 비닐류를 선별한 뒤 남은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시설을 완비했지만, 정작 이 사료의 판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환경공단 송대사업소 음식물자원화팀 나규현씨는 “최근 사료용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구매하려는 업체나 대규모 농장들이 늘어나 유상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최치봉 기자 2013. 09. 24

### 광주 음식쓰레기 사료로 판매

그동안 무상으로 축산 농가 등에 제공된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이 사료 원료 등으로 판매된다. 9월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연간 4300여t의 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판매하기로 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를 위해 배합사료 업체와 오리·닭 농가 등을 상대로 사료 원료 매입 입찰 공고를 낸 뒤 10월 중순까지 업체 2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곳에서 나오는 음식물 부산물 사료 원료를 kg당 20~30원에 판매할 경우 한 해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물로 나오는 음

### 진천군, 농안기금 대상 작물 확대 (오리 추가)

충북 진천군은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보전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적용 대상 농축산물을 애초보다 확대했다. 군은 25일 개최한 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장미, 국화, 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13개 작물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6월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8개 작물(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한우, 육우, 젓소)보다 5개 작물(장미, 국화, 돼지, 닭, 오리)을 추가했다. 군은 농안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는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2023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차액 지원은 2019년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차액 지원 대상 농가는 진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농작물은 1품목당 990㎡ 이상, 한우·육우·젖소는 5마리 이상, 돼지는 50마리 이상, 닭·오리는 250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다. 음성군은 지난 4월 24일 24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안기금 10억원을 의결해 전국 최초로 농안기금을 확보하고 2018년부터 지원한다.

뉴스스 강신욱 기자 2013. 09. 25

암질환, 면역저하질환, 면역억제요법 환자, 염색체 이상질환 등)는 10월 7일부터 약품소진 시까지 1만 6600명을 접종한다. 유료예방접종은 만 50세 이상, 36개월 이상~59개월 영유아, 임신부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접종비는 백신 구입 가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독감 유행 시기보다 적어도 2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백신의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므로 10월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충청일보 김요식 기자 2013. 09. 25

## 음성군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음성군보건소(소장 김주오)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3~14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이며 보건소,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마을별, 시간별로 자체 일정을 수립·지정해 분산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인원은 총 2만800명으로 무료접종은 1만6600명, 유료접종은 4200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무료예방접종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과 닭, 오리, 돼지농장 종사자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접종하고 만 62세 이상 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신경질환,

